

금호중앙여고 윤태연 ‘만해백일장’ 장원



금호중앙여고 윤태연 ‘만해백일장’ 장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돌멩이가 되줄테니’ 출품...고등부 산문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윤태연 학생이 지난 3월 1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45회 전국 만해백일장’에서 장원(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만해백일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을 통한 시대 성찰과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3·1절을 기념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대한불교청년회(KYBA) 주최, 서울특별시·동국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시, 시조, 산

문 부문에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윤태연 학생은 산문 부문에 출전해 ‘돌멩이가 되줄테니’ 작품으로 장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하늘의 별과 땅의 돌멩이라는 대조적 감각을 통해, 기억되고 싶은 마음과 곁에 남고 싶은 사랑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품을 앞둔 노인의 시선을 통해 ‘먼 곳에서 반짝이는 존재(별)’보다는 ‘가까이서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돌멩이)’로 남고자 하는

바람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 심사위원단은 “별처럼 머나먼 존재가 아닌, 가까이에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감동적으로 전해졌다”며 “죽음을 다루면서도 과장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직조한 표현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윤태연 학생은 “읽는 이들이 마음의 온기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며 “진심이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교육청-APEC국제교육협력원, 글로벌 인재 양성 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과 APEC 국제교육협력원이 지난 25일 본청 상황실에서 국제교류 증진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경찰서, 이달의 에이스 수사관 ‘정운후, 김수근 경사’ 선정

순천경찰서는 ‘이달의 에이스 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과 통합수사팀 정운후, 김수근 경사를 표창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순천 송광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순천시는 송광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 주축으로 미중물보장협의체, 119생활안전순찰대, 더림협동조합, 이장단 등이 협력해 덕동마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양중앙로타리클럽, 위기가구에 중고가전 나눔 광양시는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이 광양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중고가전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섰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읍 노인 부부 가구와 조순 가구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전남도, 충남 홍성서 찾아가는 고향사랑 캠페인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 등 사랑애스포터즈 등 홍보



전남도는 홍성군 일원에서 열린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방문해 고향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전남 사랑애(愛)스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27일 진행했다. 행사에선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 임원들과 향우회원 300여 명 대상

으로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스포터즈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노영민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 제1대 회장, 천정순 제2·3대 회장, 김철민 제4대 회장에게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현액 증서를 전달하고, 고향사랑 실천에 감사

를 표하며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노영민 제1대 회장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하고 2025년 2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했으며, 천정순 제2·3대 회장이 2024년 200만 원을 기탁하고 2025년 추가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철민 제4대 회장이 2024년 200만 원을 기탁하고, 2025년 1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며 모두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철민 회장은 “마음만은 항상 고향을 향해 응원하고, 향우들과 계속 소통하며 전남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자 “많은 향우들께서 다채로운 음식과 봄꽃이 만연한 전남을 방문해 오감 만족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완도경찰 노화파출소,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교통안전 교육...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



완도경찰서 노화파출소는 지난 24일 대한노인회 노화읍분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약 50명을 대상으로 보

이스피싱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유형, 사기 수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동영상과 팸플릿을 통해 전달했다. 또한 경운기, 보행 보조용 의자차 사용 시 주의사항, 보행 3원칙 등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교통안전 관련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정호 소장은 “고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광주소방 ‘4월의 우수 소방인’ 선정

송한규·박선홍·한영길·오정균·임효정 소방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소방을 빛낸 4월의 우수 소방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119특수대응단 송한규 소방위, 북부소방서 박선홍·한영길 소방위, 남부소방서 오정균 소방장, 광산소방서 임효정 소방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된 소방인들이다. /김도기 기자

송한규 소방위는 지난달 비번일에 식사 도중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기도 폐쇄를 의심, 곧바로 하인리히법 응급처치를 실시해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했다. 또 각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여준 소방인들도 선정됐다. 구조출동 분야에서는 박선홍 소방위가, 구급출동 분야에서는 한영길 소방위와 임효정 소방장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오정균 소방장 등이다.

순천 주암댐노인복지관 ‘아나바다 장터’

내달 20~28일 생활문화교육관...오늘부터 접수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순천 주암댐노인복지관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 아나바다 장터 ‘다시 나누고, 더 나누고’를 복지관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물품을 기부하고 준비한 물품, 수공업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지역 주

민들과 복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물품’의 의미로 나누는 공동체 행사였다. 장터를 통해 모인 총수익금 271만 8500원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70명에게 삼계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암댐노인복지관 문운연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중마동, 가정의달 ‘효 나눔 꾸러미’ 전달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식료품 지원·안부 확인



광양시는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내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효(孝)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꾸러미는 건강 주 세트 외 8종, 약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맞춤형 품목으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 24명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효 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따

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호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택 중마동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